

# 사이버보증시장의 리더

디지털 건설환경의 뉴-프론티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인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PLANT & MECHANICAL CONTRACTORS FINANCIAL COOPERATIVE OF KOREA

www.seolbi.com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 전자보증 시행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은 2006년 1월 9일부터 현대건설(주)와 민간공사 전자보증(B2B, Business To Business)제도 계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보증이란, 조합원사가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조합이나 현대건설(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보증서 발급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편익과 비용 부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자보증은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3종의 전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찬재 이사장은 밝히면서, 「2006년 경영목표인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의 실현에 맞춰 조합원사의 경영파트너로서 조합, 전자조합 구

현에 더욱 박차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은 현대건설(주)를 시작으로 롯데건설(주), 금호산업(주)와도 시행을 준비중에 있어 올 상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자보증 서비스 대상의 확보와 제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이찬재 이사장은 「보증업계 최초 인터넷보증을 시행한 축적된 기술력과 조합원사의 입장에서 조합이용의 편익을 위해 연구하는 자세로 더욱 많은 서비스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지면서, 「조합원사의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업무지식 UP-GRADE, 서비스 마인드 재충전

**2**005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박 3일간 2005년도 실무자반 직무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제주영업소 근무를 시작했으니, 거의 1년만에 향하는 청담동 본부로의 발걸음은 찬 공기를 뚫고 설레임마저 느껴지더군요.

우리 조합의 2006년도 경영목표인 「조합원과 하나 되는 조합」을 모토로 직원 모두가 업무와 정신을 단련하여 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직원

교육이었지만, 올해에는 건설환경 변화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를 비롯한 관련법 개정 등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다소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마치고, 박종인 기획상무님의 조합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교육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비(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주영업소 오 상 환

## 업무지식 UP-GRADE, 서비스 마인드 재충전

특히 상위기업은 매출액의 10%이상을 투자한다더군요. 창립 10주년을 앞둔 우리조합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비스기관의 자원이자 경쟁력은 바로 인적자원, 즉 직원들로부터 나온다는 답이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투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는 것을 실감했기에 진지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지식의 보강을 위한 본부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사내 강사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직무교육이 시작되었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내강사의 강의는 오히려 사소하고 쉬운 것을 놓칠 수 있는 실수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조합 업무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 프로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2월 14일 저녁, 본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 남한강연수원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지방에서 새벽에 상경한 직원들은 여정의 피로가 물러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역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회색빛 서울을 빠져 나와 가슴이 탁 트이는 남한강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총무부의 타이트한 교육프로그램은 밤 9시까지 계속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 없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날엔 안태환 감사님의 정신교육(지독한 몸살감기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고 교육장까지 오시는 성의에 감사드립니다)과 업무부 및 관리부의 직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모든 교육생들이 팀워크를 다지며 조합 제규정 및 상식과 관련된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실무지식과 퀴즈가 접목되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금급했던 갈증을 건어내고 그 동안 지쳤던 일상을 건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금융전문가들로부터 금융시장 경제분석에 대한 설명과 이강섭 총무부장님의 마무리 인사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부장님께서서는 건설산업 재편과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전해주시고 모두 함께 해결방법을 연구하자며 전체 교육일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3일간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이 곧 조직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조합이 속해있는 건설보증시장은 언제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하루 24시간 중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의 시간은 몇 % 인가?

2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8%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되어 결국 그 다음 날에서야 제주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짧게 느껴졌던 3일 이었지만 혼자서 근무하는 영업소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총무부의 타이트한 교육프로그램을 소화시키느라 몸은 좀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지적충만 및 즐거웠던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기에 이렇게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육담당을 비롯한 총무부 직원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구요, 내년엔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길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 광주호남지점 제주영업소 오상환 소장은 조합 내에서 끝없는 항학열과 많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로 정평이 나있다. 직무교육을 개인 역량강화로 발전시켜 더욱 발전하는 설비조합을 이루는데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새해 포부를 전해왔다.

# 국립서울산업대학원 기계설비 최고전문가 과정(제9기) 입학 안내

## 1. 모집학과

모 집 과 정	모 집 인 원	비 고
기계설비 최고전문가 과정 (9기)	30명 예정 (선착순 마감 예정)	주 2회 강의개최 화, 목(오후 7시 ~ 오후 10시)
교육기간 : 2006년 3월 ~ 2007년 2월(2학기 강의로서 학기당 15주 강의)		

## 2. 지원자격

- 가. 대한설비건설협회 산하 회원사 임직원으로 직위가 소장급 이상인 자
- 나. 상기 과정에 관심이 지대한 산업체 임직원으로 직위가 차장급 이상인 자

## 3.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본교 홈페이지(www.snut.ac.kr) / 2006학년도 기계설비 최고전문가 과정(제9기) 입학안내(입학원서 다운로드) 작성  
 기재 후 접수처(사진 포함)로 내교 접수
- 나. 접수기간 : 2006년 1월 2일(월) ~ 2006년 2월 18일(토), 선착순 마감으로 기간 변동 가능)
- 다. 접 수 처 : 서울산업대학교 기계설비센터(생산공학과관 3층 351호)  
 전화 : (02) 970-6310, 6943. HP : 011-9730-6310

## 4. 특전

- ① 무시험·무면접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관 인정 건설기술자 등급 해당(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관련 자격증 취득
- ②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산업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서 수여 및 해당 증명서 발급
- ③ 경기공업·서울산업대학교 총동문회 명부 수록 및 정회원 등록
- ④ 경기공업·서울산업대학교 설비동문회 정회원 등록

서울산업대학교 기계설비센터